

企業家活動과 經濟發展

—Entrepreneurship 研究의 視角에서—

姜 命 圭

目 次

序 言

第一章 理論的 模型—슘페터

第二章 低開發國과 企業家活動

(1) Entrepreneurship 概念의 適用不可論

(2) Entrepreneurship 概念의 積極的 適用

第三章 企業家活動의 社會的 條件

(1) 企業家史研究의 始發點

序 言

이 論稿는 經濟史研究도 特定한 「時代」에 관해서 보다 오히려 諸種의 「問題」에 관한 研究에 從事하여야 한다는 意識에서(註1) 經濟發展上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이 차지하는 位置를 把握해 보코자 試圖한 것이다.

近年 經濟理論은 靜態論에서 動態論으로, 均衡理論에서 發展理論으로 展開하여 既往에 「常數」로 看做되어오던 人口, 技術狀態, 資本, 自然資源등을 새삼 「變數」로 導入하게 됨에 따라 그와 같은 新資源의 開發, 技術革新, 資本蓄積등의 活動에 指導的 役割을 擔當하는 「企業家」즉 新企業을 創設하고 生産方法을 變革하며 새로운 販賣方法을 創始함으로써 經濟發展을 實質적으로 惹起시키는 「企業家」에 관한 研究가 經濟學에서 重要한 課題의 하나로 認識되기 시작한 것은 슘길 수 없는 사실이다(註2). 그러나 經濟發展의 理論이 人口增加率이나 資本蓄積率같은 客觀的·貨幣的인 諸要因에 관한 研究에 滿足하지 않고 實際로 企業家라는 經濟主體의 人間的 活動

그 自體에 눈을 돌려 그 歷史·社會的 異質性和 多元성에 이르기까지 考察하기 시작한 것은 決코 오랜 일이 되지 못한다(註3).

즉 J·A 슘페터가 『經濟發展의 理論』(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에서 企業家인 人間主體를 經濟學의 王座에 끌어올림으로써 企業家에 의한 innovation을 經濟發展의 基本的인 動因으로 삼은 것은 이미 1912년의 일이었으나 그로부터 數十年 企業家의 主體的 活動 그 自體는 如前히 經濟學者에 의한 積極的인 研究對象에서 除外되어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것은 로스토오 教授도指摘하고 있는 바와 같이 過去 2世紀間 經濟學者들이 基礎的인 「人間的 諸要因」을 無視하고 人間에 관한 너무나 單純化된 假定에 立脚하여(註4) 自然法思想에서 緣由되는 人間平等論을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여러 經濟主體間的 差異는 전혀 各人의 役割·機能上의 差에 지나지 않으며 人間 그 自體의 才能·適性的 差가 아니라고 하는 思想이 오랜동안 經濟學을 支配해 온 탓으로(註5) 經濟主體, 그중에서도 企業家에 관한 積極적인 研究를 阻害해 온 때문이었다.

그러나 2次大戰後 經濟發展의 理論이 經濟成長論으로서 實證的·歷史的 研究의 傾向을 가지기 시작함에 따라 또 특히 그것이 低開發國問題와의 關聯에서 國際的 視野에 서게 되자 歷史·社會的 環境을 달리하는데 따라서 나타나는 經濟主體의 異質性·多元性이 具體的인 研究課題

(註1) W. W. Rostow, The Process of Economic Growth (2nd ed., 1960), p. 145.

(註2) Ibid., p. 337. Meier and Baldwin, Economic Development (1957), pp. 119~124. B. Higgins, Economic Development (1959), p. 771.

(註3) A.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1959), pp. 41~42.

(註4) Rostow, op. cit., p. 35.

(註5) G. Myrdal, Economic Theory and Underdeveloped Regions (1957), pp. 113, 115. 李基俊·林鍾哲譯 『經濟理論과 低開發地域』 112, 114~5面

로 登場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經濟理論이 獨占의 競爭의 理論 乃至는 寡占의 理論으로서 精密化됨에 따라 「企業理論」의 立場에서도 企業家行動에 관한 보다 깊은 實證的 研究가 不可避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經濟學의 一分野로서의 經濟史學에 있어서도 經濟理論의 이와같은 새로운 動向에 대하여 無關心할 수 없어 各國의 工業化過程에 관한 比較史的 研究가 活潑해 지자 그에 따라 從來 經濟史가 無視해 오던 企業單位와 人間的 諸要素에 대한 再檢討가 試圖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1949年 하아바드大學에 設立된 「企業家史研究所」 Research Center in Entrepreneurial History는 다름아닌 이와같은 機運에 刺戟되어 「企業家活動」 Entrepreneurship의 歷史的·實證的 研究에 經濟史學者를 中心하여 理論經濟學者, 歷史學者, 社會學者, 經營學者등 社會科學諸部門의 才能을 動員하려는 試圖였다고 볼 수 있다(註6).

本稿에서는 이와같은 背景에서 出發한 「企業家活動」에 관한 研究의 具體的 內容을 특히 經濟發展과의 關聯에서 探求해 보고자 하는 것이나 이에 앞서 이 問題를 經濟理論의 提超하여 古典的인 模型을 이루고 있는 슈페터의 「革新理論」으로부터 接近해 보기로 한다. 그렇다고 슈페터의 發展理論을 全般的으로 檢討하려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의 理論構造上 「企業家活動」과 直接的으로 關聯되는 部分만을 理想型的으로 檢出하는데 限界를 둔 作業임은 두말할 것도 없다.

第一章 理論의 模型—슈페터

이처럼 「企業家活動」과 經濟發展의 關係를 體系의 分析하여 前者를 後者 經濟發展의 基本動因으로 確立한 것은 周知하는바와 같이 J·A 슈페터이며 오늘날 企業家史研究의 理論的 母體를 이룬것도 바로 그의 經濟理論인 만큼 그에 대한 理解는 本稿의 性質上 第1次的인 出發點이

(註6) 이 「企業家史研究所」의 研究成果는 初年度의 研究動向을 要約한 論文集 Change and the Entrepreneur(1949)를 爲始하여 同機關誌 Explorations in Entrepreneurial History (1949—1958)에 定期的으로 發表되어 있고 특히 A. H. Cole의 前掲書는 戰後 15年間의 成果를 總括的으로 收錄한 業績이다.

아닐 수 없다. 이 경우 本稿와의 關聯에서 이른바 슈페터體系를 概觀하는데는 여러가지 方法이 있겠으나 여기서는 最近 模型化의 方法에 의하여 슈페터 理論을 簡略하게 理解시키는데 比較的 成功하였다고 보는 Benjamin Higgins의 所論을 中心으로 展開하고자 한다.

Higgins는 슈페터의 經濟發展理論을 12個의 命題로 要約하여 그것을 各各 方程式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主題에 關聯이 깊은 것들을 추리면 아래와 같다(註1).

命題一. 生産函數

슈페터의 生産函數概念은 古典學派와 同一하여 總生産高 O는 勞動力規模 L, 資本스톡크 Q, 可用自然資源 K, 技術水準 T에 依存하므로

$$O=f(L, K, Q, T)가 成立한다.$$

命題二. 貯蓄은 賃金, 利潤 및 利子率에 依存한다.

貯蓄은 S, 賃金を W, 利潤을 R, 利存率을 r 이라고 하면

$$S=S(W, R, r) 이 된다.$$

命題三. 投資는 誘發投資와 自發投資로 나누어 진다.

誘發投資를 I_s , 自發投資를 I_A 라고 할때

$$I=I_s+I_A$$

命題四. 誘發投資는 利潤水準과 利子率에 依存한다.

誘發投資는 經常利潤이 上昇함에 따라 증가하고 利子率이 上昇할 때에는 減少하나 이미 蓄積된 資本이 많을수록 利子를 초과하는 利潤이 큰 것이므로

$$I_s=I_s(R, r, Q)$$

$$\frac{\partial I_s}{\partial r} > 0 \quad \frac{\partial I_s}{\partial r} < 0 \quad \frac{\partial I_s}{\partial Q} < 0$$

命題五. 自發投資는 資源發見과 技術發達에 依存한다.

여기서 自發投資의 主源泉은 innovation 임을 나타내는 同時에 產出高의 增加를 가져오는 生産函數의 一切의 變化를 innovation으로 보고 있으며 그 具體的 內容으로는 다음의 다섯가지 形態를 들고 있다.

〔1. 새로운 財貨 즉 消費者들에게는 아직 充分히 알려져 있지 않은 財貨의 製造.

(註1) B. Higgins, op. cit., pp. 125~137.

2. 새로운 生産方法 즉 當該生産部門에서 사실상 未知로 되어있는 生産方法의 導入. 이는 구태어 科學的인 新發見에 依據할 必要가 없으며 商品의 商業的 取扱에 있어서의 新方法도 포함된다.
3. 新販路의 開拓. 즉 當該國의 當該産業部門에 既往 紹介되어 있지 않았던 市場의 開拓. 但 이 市場이 既存의 것이든 아니든 相關없다.
4. 原料 혹은 半製品의 새로운 供給源의 獲得. 이 경우에도 그 供給源이 既存의 것이든 아니든— 그 理由는 단순한 等閑이 아니면 그 獲得이 不可能하다고 認定되었기 때문일 것이지만—또는 그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든 아니든 何等 相關이 없다.
5. 新組織의 達成. 즉 獨占의 地位—가령 特許權 化에 의한—의 形成 또는 獨占의 解體같은것(註2).」 一定期間의 資源發見率을 K , 技術發達率을 T 라고 하면 自發投資는

$$I_A = I_0 (K, T)$$

命題六 및 七. 技術發達과 資源發見率(= innovation)은 企業家供給에 依存한다.

資本主義體制下의 經濟發展에 있어 企業家의 指導의 役割에 核心의 比重을 두고 있는 點은 슈페터體系의 主要特質이다. 여기서 말하는 企業家란 반드시 資本家나 企業管理人이나 發明家일 必要가 없고 潜在的 價値가 있는 發明이나 資源發見의 在庫를 經濟的으로 結合하여 利用케 하는 特殊한 能力의 所有者를 말한다(註3). 그러므로 E 를 企業家供給의 增加率이라고 하면

$$\begin{aligned} \dot{T} &= T(\dot{E}) \\ \dot{K} &= K(\dot{E}) \end{aligned}$$

命題八. 企業家供給은 利潤率과 社會的 霧圍氣 (social climate = 社會的 風土)에 依存한다.

여기서 슈페터는 社會學的인 諸要素 즉 社會·政治·心理·文化的인 環境이 企業家活動에 影響을 미친다고 하는 水準에까지 到達하고 있다. 이 社會的「霧圍氣」또는 「風土」에서 특히 중요한 要因은 「競技規則」, 즉 企業家가 그 비두리 안에서 活動하여야 하는 諸條件에 대한 企業家自身의 認識態度이다. 符號 x 를 社會的「霧圍氣」

全般이라고 한다면 一定社會의 企業家資源의 決定因은 아래와 같이 表示할 수 있다.

$$E = E(R, x)$$

命題十一. 「社會的 霧圍氣 (= 風土)」는 所得分配의 影響을 받는다.

슈페터의 climate 概念은 지극히 복잡하고 애매한 것이지만 大體로 그는 所得分配률, 全般的 霧圍氣를 測定하는 「溫度計」로 보고 있다. 그리하여 勞動組合, 社會厚生政策, 뉴·딜政策 등 國家에 의한 經濟干涉을 「競技規則」의 變動을 招來하는 要素로 보고 이것이 賃金과 利潤사이의 均衡狀態에 衝擊을 加하기 때문에 企業家活動이 沮喪되고 따라서 投資가 減少한다는 것이다. 賃金에 대한 利潤의 比率을 「霧圍氣」에 影響을 미치는 모든 要因의 記號로 잡는다면 다음 式이 成立한다.

$$x = x(R/W)$$

우리는 以上の 模型化된 슈페터의 發展理論에서 古典學派나 맑스體系와 差異를 이루는 세계 特色을 抽出할 수 있다. 즉 첫째는 利率을 貯蓄의 決定因으로 導入하였다는 것이며 둘째는 自發的 投資를 誘發的 投資에서 區別하고 이 自發的 投資에 影響을 주는 要因으로서 「革新」概念을 確立한 것이며, 셋째는 企業家活動을 經濟發展의 動因勢力으로 強調했다는 點이다. 특히 이 중에서도 슈페터體系의 가장 異色의인 側面은 셋째 點의 企業家活動을 經濟發展의 動因으로 보려는 點이며 슈페터 以後의 成長理論들에서 그의 發展論을 頻繁히 문제삼게 된 契機도 바로 이 點에 있었던 것이다(註4).

勿論 슈페터體系는 包括的 社會理論이나 西歐 文明史의 綜合을 試圖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反對로 資本主義社會의 經濟的 側面에 分析의 焦點을 두어 近代經濟學上의 舉皆의 素材를 動員하면서 資本主義時代 經濟過程의 比較的 좁은 問題를 解明하려 했다(註5).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非單 經濟學뿐만이 아니라 餘他的 社會科學의 知識이 이 過程에 關한 模型을 構築하는데 強力히 要求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問題는 어떠한 素材를 利用하였는가에 있다

(註2)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1926), SS. 100~101.

(註3) Ibid., SS. 111~112.

(註4) B. Higgins, op cit., p. 138.

(註5) Schumpeter, op cit., S. 90.

기 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결과를 발생시켰는가
가 더 중요한 것이다(註6). 슈페터는 결코 非經濟
的인 與件變動에 관한 體系의 解明을 試圖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不拘하고 結果적으로는 經濟
要因의 說明過程에서 社會學的, 心理學的, 政治
的 및 技術的인 諸要因의 廣範한 領域에 進入하
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註7). 그의 靜態的 均
衡狀態가 非連續的인 攪亂作用으로 그 循環的
흐름에 軌道變化가 發生하고 信用創造의 힘을 빌
린 「新企業」 New Firm의 活動으로 經濟發展이
이루어지는 過程에 관한 所謂「革新理論」은(註8)
說明의 이 段階까지는 純經濟要因의 作用에 관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그것이 「新企業」의
發展에는 「新人」 New Man에 의한 指導力이 수
반되어야 한다고 하는 部分에 이르러서는(註9)이
미 非經濟的인 「人間的 要因」을 內包시키고 있
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와같이 보아오면 슈페터體系에 있어서는 「企
業家活動」의 供給을 決定하는 因子가 무엇인가
하는데 그 核心이 놓이게 되며 이에 대한 解答
을 얻지 않고는 經濟가 成長 또는 沈滯하는 原
因의 說明이 不可能하다. 그런데 여기서 슈페터
는 이에 대하여 滿足할만한 解答을 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新企業」을 일으킴으로써 經濟를 成
長케 하는 「新人」의 發生에 適合한 社會的 「雰
圍氣」 또는 「風土」라고하는 莫然한 概念속에 解
消시키고 만다. 그렇다고 그가 이 「雰圍氣」의 문
제를 회피하려 한 것은 勿論 아니다. 이와외 關
聯에서 企業家 및 企業家活動의 本質과 그 動機
그리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社會環境에 관하여
簡略하게나마 論及을 하고 있는 것이다(註10).
이 點에 관한 具體的 內容은 다음 章으로 미루

(註6) Clemence and Doody, The Schumpeterian System(1950), p. 9.

(註7) B. Higgins, op. cit., p. 132.

(註8) Schumpeter, Business Cycles(1939), I. pp. 87~101. Schumpeter, op. cit., SS. 99~110.

(註9) Business Cycles, op. cit., I. p. 103,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op. cit., SS. 111~131.

(註10) 企業家活動의 風土의 條件에 관하여 슈페터가 簡略하게 論술했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企業家活動의 本質 및 動機에 관해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部分에 관하여는 Ibid., SS. 126~127.) 企業家活動의 社會的 環境에 관한 限 실은 그의 理論體系上 本質的인 重要性을

거니와 다만 여기서 附記하여 두는 것은 슈페터가 그의 遺稿에 의한 『經濟分析史』 History of Economic Analysis(註11)에서 自己더러 經濟學을 새로 시작하라고 한다면 經濟史를 擇하겠다고 斷言한 것은 생각컨대 叙上한바와 같은 透視와 展望을 內包한 經濟發展의 動因으로서의 「企業家活動」과 그 供給의 決定因인 「雰圍氣」 내지 風土의 문제를 보다 넓은 視野에서 具體的으로 探求해 보고자 했던 意欲의 表現이 아니었을까 하는 點이다. 이 點은 실제로 그가 末年에 하아바드大學의 「企業家史研究所」 設立의 中心人物이 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보아도 充分히 容認되는 推論이 아닐수 없다(註12).

第二章 低開發國과 企業家活動

以上에서 우리는 企業家活動과 經濟發展의 關係를 슈페터의 革新理論에서 至極히 概括的으로 檢出하고 그것이 슈페터의 經濟學上의 問題意識에 어떠한 位置를 占하며 또 그가 이 視角을 通해서 經濟發展에 대하여 어떠한 透視를 가지게 되었는가 살펴왔다.

이제 여기서는 슈페터의 叙上한 바와같은 資本主義經濟發展에 관한 비전(vision)이 低開發諸國의 現實에 適用이 可能한지의 與否를 이른바 後進國開發論과의 關聯에서 더듬어 보기로 한다. 近年 經濟理論上 成長論의 研究가 活潑해짐에 따라 슈페터의 革新理論은 發展理論을 體系적으로 다룬 하나의 古典으로서 새로운 脚光을 받게된 것은 事實이지만 그것은 大概 資本主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本稿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슈페터의 革新理論은 資本主義라는 社會體制가 存續하기 위한 唯一한 發展機構로서의 企業家活動을 論한 것이고 그의 獨特한 vision에 의한 社會主義化傾向에 따라 企業家活動은 그 意義가 달라진다고 보고있는 것이다. 本稿에서는 資本主義的 經濟體制를 所與의 것으로 假定한 範圍內에 限해서 論하려 하였기 때문에 이 問題를 다루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에 관해서는 그의 著 Business Cycles, Op. cit., II. p. 103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4th ed., 1954). pp. 132~33 參照

(註11) Schumpeter,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1954), p. 12.

(註12) 이 分野에 그가 直接 寄稿한 論文으로 "Economic Theory and Entrepreneurial History," in *Change and the Entrepreneur*, op. cit., pp. 63~84가 있다.

義가 典型的으로 展開되어 온 先進諸國의 經濟成長을 理想型的으로 解明하는 하나의 記述的 手段으로 援用되었을 뿐 높은 水準의 成長理論에서는 窮局的으로 發展理論의 體系內에 包攝되어야 할 運命에 있는 低開發諸國의 經濟開發理論에서는 果然 어떠한 位置에서 있는가, 또 萬一 그것이 後進國의 現實에 適用이 許容된다면 理論的으로 어떠한 說明이 可能한가 하는 側面에서의 問題提起는 稀有하였다. 本章의 問題는 바로 이 點에서 出發하며 이때 問題를 提起해 가는 方向이 슈페터 理論에 立脚하여 特히「企業家活動과 經濟發展」이라는 角度에서 展開되어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1) Entrepreneurship 概念의 適用不可論

일찍이 녀시教授는 低開發諸國의 經濟發展에 관한 理論的 研究에 대하여 「슈페터의 偉大한 業績에 눈을 돌리지 않고는 이 主題를 考察하는 것이 거의 不可能하며」 또 「슈페터 理論은 說使 그것을 약간 相異한 內容으로 使用하여야 겠지만 우리가 여기서 使用하려는 模型(mould)을 提供해 주고 있는 것 같다」고 論한바 있다(註1). 그러나 이것은 例外에 속한 論及이며 經濟發展에 관한 슈페터의 理論模型은 低開發國 經濟研究에 있어서 看過되어 온 것이 一般趨勢이었다. 그리하여 低開發諸國은 슈페터理論을 適用할수 없는 「非슈페터의 世界」라고 하는 觀念이 支配하여왔던 것이다(註2).

勿論 半世紀以前的 先進資本主義經濟의 發展 機構의 敘述을 意圖하였던 歷史的 產物로서의 資本主義體制下의 經濟運動에 관한 슈페터 模型이 그와 判異한 社會經濟史를 경험해 온 後進諸國의 經濟諸條件에 完全히 適用되기를 바란다면 오히려 그것이 時代錯誤가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슈페터 理論은 經濟發展過程을 解明한 至極히 드문 體系中의 하나인 만큼 그것이 低開發國에 適用 不可能하다는 論의 根據를 檢討하는 것은 이 論稿의 性質上 不可避한 通過點이 아닐 수

(註1) R. Nurkse,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1953), pp. 11~12.

(註2) 그 代表的인 例는 A. Lewis,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1955)가 슈페터에 관해서 거의 論及하지 않고 있는 點이다.

없다.

그 代表的인 論據를 들어 보면 먼저 H. C. Wallich(註3)는 슈페터理論과 低開發諸國의 現實과의 差異를 強調하였고 H. W. Singer(註4)는 이 差異를 가지고 低開發國 經濟發展에 대한 障礙를 分析하는데 使用하였으며 또 Alfred Bonn (註5) 教授는 Wallich의 理論을 實證的으로 支持하려 하고 있다.

즉 Wallich에 의하면 슈페터 模型에서 想定하는 經濟發展은 「革新的」乃至는 「內發的(始原的)發展」originating development이며 그 經濟가 「生産指向的」production oriented 인데 反하여 低開發國의 發展過程은 「消費指向的」consumption oriented이라고 한다. 즉 이것은 發展過程이 後進國에서는 革新에 基礎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既存革新의 同化」assimilation of existing innovation에 根據하기 때문이다. 低開發國에서 發展에 誘因이 되는 것은 이 「同化」可能性이며 이 同化作用을 가지고 Wallich는 「外發的(誘導된)發展의 概念」a concept of derived development, 다시 말하면 他處에서 이루어진 革新에 의해서 誘發되는 發展의 概念을 提示하였다(註6). 이것은 그가 슈페터 模型에서 發展의 動因이 企業家活動 내지 革新이라는 體系內의 生産과 供給面에 두고있는데 대하여 그것을 「內發的(始原的)發展理論」이라고 想定하고 있는데서 비롯한 對立概念이다.

보다 具體的으로 보면 兩者의 差異는 經濟發展의 動因 즉 ①主體的 勢力과 ②그 方法 또는 過程과 그리고 ③發展의 目標에 있어 뚜렷해지고 있는데 Singer는 이것을 다음의 세가지 側面에서 對照시키고 있다(註7). 즉 첫째 슈페터理論

(註3) H. C. Wallich, "Some Notes Towards a Theory of Derived Development", in *The Economics of Underdevelopment* (ed. by Agarwala and Singh, 1958), pp. 189~204.

(註4) Singer, "Obstacles to Economic Development," *Social Research*, XX(1953), pp. 19~31. (이 論文을 入手치 못하여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61), pp. 422~450에서 間接的으로 引用한다.)

(註5) Bonn , *Studies in Economic Development* (1957), Chapt XII.

(註6) Wallich, op. cit., p. 195

(註7) Singer, op. cit., pp. 19~20

에서는 私的 企業家가 發展의 推進力인데 反하여 低開發國의 實情에서는 그것이 政府인 경우가 一般의이다. 둘째 슈페터 理論에서는 發展이 새로운 生産技術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反하여 低開發國에서는 그것이 先進國으로 부터의 既存技術의 導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셋째 發展의 動機 또는 刺戟이 슈페터 理論에서는 企業家들의 野心으로 供給側에 介在하는데 反하여 低開發國에서는 그것이 生活水準의 改善을 熱望하는 意欲에서 需要側에 介在한다. 以上 세가지 論點은 廣義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이 後進國에 있어서는 經濟發展의 動因이 되지 못한다는 主張의 要旨인데 果然 이와같은 論據는 理論의 妥當性이 容認되는가를 以下에서 Douglas Rimmer(註8)의 所論을 中心으로 檢證해 보기로 한다.

먼저 經濟發展의 指導의 主體가 어느 層이나 하는 問題이다. 흔히 一般的 論調에서는 이것을 私的 企業家와 政府와를 對照시켜 後進國開發에 있어서 政府의 役割을 高唱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問題의 焦點이 어디까지나 Entrepreneurship 自體에 있고 政府나 民間이나 하는 것은 다만 그것을 達成하는 手段上의 差異에 지나지 않으므로 兩者의 단순한 對照보다는 低開發國에 있어서 革新 또는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이 私的 民間보다는 政府의 事業으로 이루어 진다는 角度에서 高瞻하여야 할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Wallich에 의하면 슈페터 理論은 이 點에 있어서 모든 後進國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大部分의 先進國의 實情에 조차도 適用시키기 어렵다고 한다. 즉 「內發的(始原的)發展」에서는,

「發展이 企業家에 의해서 進行된다. 政府役割은 副次的 내지 受動的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은 무어니 무어니 해도 슈페터의 理論의 意味하는 바다. 歷史上 記錄으로 볼때 가령…… 美國과 獨逸을 비롯한 餘他國家들의 政府가 發展을 促進하는데 積極的으로 나섰던 일이 종종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는 그와같은 나라들의 展望이 外發的(誘導된) 發展의 性格을 지닌 어느정도 非슈페터의인 要素를 그안에

가지고 있었음을 暗示하는 것이다.」(註9)
이 點에 대해서는 슈페터도 全然 看過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즉,

「獨逸에서는 君主와 그 官僚들이 數世紀間 經濟生活에서 支配的인 要素가 되어왔다. 近代産業을 創始한 것은——다시 독일의 경우에는——企業家라기 보다는 오히려 國家가 아니었을까? 이에 대한 對答은 肯定的이며 또 適切한 制限條件만 부친다면 餘他的 나라들에 대해서도 이와 비슷한 對答을 들릴 수 있을 것이다.」(註10)

그러나 슈페터는 곧 이어 이렇게 叙述하고 있다.

「國家政策(statecraft)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分析水準에는 別個의 調整要因으로 들어 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特種의 企業家活動이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與件을 形成하는 勢力에 지나지 않는다.」(註11)

우리가 이 引用文에서 看取할 수 있는 것은 그의 模型이 資本主義體制의 經濟過程을 論한 것이며 또 그가 資本主義經濟發展의 적어도 어느 段階에 있어서는 政府活動이 決定的이었던 것을 是認하고 있으면서도 그와같은 政府의 企業家活動이 私的 企業家活動과 機能上 區別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經濟發展을 促進하는 政府政策을 「與件을 形成하는 勢力」으로서 外生的 要因으로 取扱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본다면 슈페터 體系에서 企業家活動을 政府가 擔當하느냐 私的 民間이 擔當하느냐가 原理上 問題視되지 않게 되는데 그렇다면 그가 어찌서 그와같은 差異를 認定하려 하지 않았던가가 疑問視된다. 이는 資本主義社會에서는 政府活動이라는 것이 부르조아階級の 態度에 依存하여 規定되기 때문에 發展의 擔當者로서의 成功的인 企業家가 政府政策에 強力한 發言權을 가지게 되어있다고 하는 맑스의 國家觀을 그가 받아들여 고 있는 데 原因이 있다(註12). 그리하여 슈페터의 觀點에서는 政府가 重要한 關心對象이 되는 것은 그것이 發展을 阻止시키거나 資本主義의 制度로서의 機能을 發揮하지 못하게 하거나 하

(註9) Op. cit., pp. 200~201.

(註10) Business Cycles, op. cit., I, pp. 234~235

(註11) Ibid., p. 235.

(註12)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p. cit., p. 433n

(註8) D. Rimmer, "Schumpeter and the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ust, 1961), pp. 422~450

여 부르조아階級の 利害에 反하게 되고 敵對勢力으로 轉化될 경우뿐인 것이다(註13). 이것은 슈페터가 資本主義의 機能作用에 관한 研究인 『經濟發展의 理論』에서는 「政策」問題를 全然 言及하지 않았던 點에 反하여 資本主義의 衰退에 관한 論著에서는 「政策」問題를 重視하고 있는 根本理由도 된다(註14). 여기에 대해서는 現代에 있어서 行政의 獨立性이라는 面에서 政府政策이 반드시 特定集團의 利害를 代辯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럴수 없다는 點에서 論駁對象의 하나가 된다. Bonné의 表現을 引用하면

「政治學 및 政府論分野의 近代學派는……사실 政府가 本質上 中立의인 立場에서 일함으로써 政治事態의 變動이 있다해도 共同社會全體의 利益을 增進시킬 수 있다는 것을 假定하고 있다. 西歐諸國의 經驗은 現代의 行政이 國民全體의 福祉를 增進시키려는 觀點에서 차여진 經濟開發計劃을 遂行해나갈 그와 같은 能力의 評價를 支持해 주고 있다(註15).」

그러나 슈페터는, 近代議會國家의 政府를 「人民의 意思와 共益을 實現시키려고 애쓰는 一種의 救助神처럼 인식하는 나머지 政府政策의 中立性을 信憑한다는 것은 理念的 妄想」(註16)이라고 하여 「政治」와 「政策」의 本質的 區別을 拒否한다. 어느 政治家를 莫論하고 궁극적으로 社會共益을 實現할 수는 없음에도 不拘하고 모든 政治家가 政策을 통해서 이를 實現하겠다는 公言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와같은 各種公言 내지 意見들간의 對抗關係야 말로 政治世界의 角逐場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註17). 따라서 「政策 즉 政治」라는 命題를 背景으로 가지고 있는 슈페터體系에서 政府活動이 魅力을 잃는 것은 當然한 歸結이며 그것을 餘他의 人間活動과 質의으로 다르게 取扱할 수 없는 性質의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政府活動과 個人活動간의 差異라고 하는것은 制度的 形態上的 差異에 不過한 것으로서 이것을 가지고 슈페터의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의 主導的 動因이라는 命題에 대한 批判의

論據로 삼기에는 不足하다. 뿐만아니라 이 點은 슈페터가 理論構成의 對象으로 삼았던 부르조아社會에 못지않게 低開發國에 대해서도 妥當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註18).

다음에 考察할 問題點은 發展의 「目標」 또는 刺戟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는 問題이다. 叙上한 바와같이 Wallich에 의하면 슈페터模型에서는 發展의 目標가 「企業家의 富와 勢力을 確立하는데」 있지만 低開發國에서는 「私的 致富가 優勢한 目標가 아니라」(註19) 「生活水準의 向上이 特徵的인 目標인것 같다……」(註20)는 것이다. 이것은 앞서 論한 企業家活動의 擔當者에 따라 發展의 動機가 相反된다고 보는 見解이다.

그러나 이때는 叙上한 슈페터의 國家觀에서 推論할 수 있는 바와같이 그 生活水準의 向上이 「누구를 爲한」 發展目標인가에도 論議의 餘地가 있거니와 보다 具體的으로는 低開發國에서의 最終收益者의 動機를 슈페터模型에서의 發展創造者의 動機와 對立시키려는 觀點은 國家活動을 超越的인 實在로 보고자 하는 假定을 內包하고 있는 것으로서 마치 어떤 한가지 意志나 目的이 社會共益에 寄與한다고 보는것과 마찬가지로의 危險性을 가지고 있다(註21). 오히려 슈페터에 의하면 企業家活動을 主軸으로 한 資本主義 經濟機構는 「不可避하게 大衆을 爲한 生産을 의미하는 大量生産의 기틀을 낳은 最初 最後의 것이며」(註22) 또 「資本主義의 過程은 偶然에 의해서가 아닌 바로 그 機構自體의 作用에 의하여 漸進的으로 大衆의 生活水準을 向上」(註23)시키고 「女王을 위한 絹織양말을 보다 많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勞動力節約의 報答으로 그것들이 女工들의 手에 들어갈수 있게 하는데 典型的으로 資本主義의 成果가 나타나는 것이다(註24).」

물론 以上の 論議는 이 論稿의 中心인 슈페터의 企業家活動을 主軸으로한 經濟發展過程이 반드시 住民의 生活水準向上에 寄與하지 못하고

(註18) D.Rimmer, op. cit., p.428

(註19) Wallich, op. cit., p.190

(註20) Ibid., p.194

(註21) D.Rimmer, op.cit., p.429

(註22)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op. cit., p.67

(註23) Ibid, p.68

(註24) Ibid, p.67

(註13)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op. cit., p.134

(註14) Ibid. Part II.

(註15) Bonné., op.cit., p.259

(註16)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op cit., p37

(註17)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 op. cit., pp.282~283.

資本家階級の致富手段으로 밖에作用하지 않았다고 하는 暗暗裡의 假定下에 그에 대한 代替概念으로서 政府에 의한 發展目標을 提示하는 Wallich의 論點을 檢討하기 위한 意圖를 內包한 것이었으나 그러면, 그가 低開發國의 生活水準向上目標은「指導力의 核心이 企業家の 領域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府와 大衆의 世界에 놓여있다」고 하는 事實의 自然스런 結果(註25)로 보고 또 低開發國에서는 企業家活動이 政府機構를 통해서 遂行되기 때문에 그것이 슈페터 模型에서는 企業家들의 利潤動機에 의해서 자극되는데 反하여 여기서는 一般의 生活水準을 改善코자 하는 慾求에 의해서 促進된다고 보는 論點은 이것을 어떻게 解析하여야 할 것인가?

既述한바와 같이 슈페터 體系에서는 企業家活動의 擔當者가 어떤 型態을 取하느냐 보다도「企業家活動」그 自體에 比重을 두었던 만큼 政府에 의한 企業家活動이라고 해서 固有한 動機나 자극이 說明되지 않는다. 그것은 슈페터가 提示하고 있는 企業家類型的 性格을 概觀하는 節次로도 足히 推論할 수 있는 것이다. 企業家の 行動이란 慣行的인 軌道를 벗어나서 發生하므로 다른 경우면 基準 삼을 수 있는 行爲決定의 與件이나 行動規則이 缺如된 狀態에서 일어난다. 이것은 慣行的 行動의 경우보다 훨씬 高水準의 合理性을 要하는 同時에 直觀이 크게 問題된다. 그뿐 아니라 企業家は「熟練한것」의 斷念에 대한 自身の 內的인 抑制 또 「색다른것」에 대한 社會的 環境의 抵抗과의 兩者에 대하여 鬪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슈페터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側面이야말로 指導力이 特種의 機能으로서 존재하는 理由이다(註26). 따라서 企業家行爲의 固有한 心理學的 特質이라고 하는것도 ①「私的인 王國을 세우려는 꿈과 意志」, ②「勝利하고자 하는 意志 즉 鬪爭하고 他人에 대한 優越을 보이려고 하며 成功의 結果를 위해서가 아니라 成功 그自體를 위해서 成功하려는 衝動」, 그리고 ③「創造하고 일을 일으키며 단순히 自己의 精力과 재주를 부려보는 즐거움」 같은데서 緣由된다고 보고 있다(註27). 그

런데 注目할 것은 私的인 致富動機가 이러한 行動에서 役割을 하지않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그것을「工業發展의 한 動因으로……代置시킨다는 것은 至極히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註28). 企業家を 단순히 마치 株式市場에서 活動하는 경우처럼 하나의 取利者로만 認識한다는것은 이와같은 異色的이고 非凡한 人間類型에 관한 슈페터의 性格究明의 要點을 看取하지 못하는 일이다. 企業家活動의 이와같은 心理學的 動機는 經濟的으로 未知의 領域에 뛰어 들때는 그가 歐美諸國의 私的 企業家이든 아시아, 아프리카의 官吏이든 똑같이 要求되는 資質이며 오히려 低開發諸國에 있어서는 한사람의 企業家的 能力이 革新, 推進, 資本調達과 危險負擔, 經營管理, 資材 및 勞動의 結合등의 機能까지 抱括하여야(註29) 하기 때문에 우리가 理解해 온 슈페터의 企業家 資質이 더한층 要請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論議의 角度가 이러할진댄 私的民間 대신 政府機關을 통한 企業家的 精力의 流用方法이 반드시 重視되는것도 아니며 더구나 設使 政府活動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型態의 人間行動과 根本的인 差異를 낳게 하는 특수한 性格을 가지는것이 아니다. 생각컨대 企業家的 動機란 그것이 行動으로 옮겨지는 經路로서의 制度(私的機構이든 公的機構이든)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註30). 그러므로 우리는「私的 企業家活動을 政府에 의한 企業家活動으로 代替한다는 것은 다만 發展事業의 管理的 形式을 바꿀 뿐이지 그 經濟的 性格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라고 結論할 수 있는 것이다(註31).

지금까지 우리는 經濟發展의 動因으로서 「企業家活動」에 관하여 그 擔當者와 그 主體的 動機의 差異點으로써 슈페터理論의 後進國經濟에

(註28) Ibid., SS. 131~137. 이 部分에 관한 슈페터의 說明은 막스·웨버와 恰似한바 있다. M. Weber, Die protestantische Ethik und der Geist des Kapitalismus(1920), SS. 30~62, SS. 163~206. 橫世元·姜命圭譯 『프로테스탄트의 倫理와 資本主義의 精神』 38~66面. 135~162面

(註29) Kindleberger, Economic Development(1958), p. 87

(註30) Wolf and Sufrin, Capital Formation & Foreign Investment in Underdeveloped Areas(1958). p. 22

(註31) Buchanan and Ellis, Approaches to Economic Development(1955), p. 82

(註25) Wallich, op.cit., p. 194

(註26)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op.cit., SS. 117~129

(註27) Ibid., S. 138

의 不適合論을 提示하는 論據를 批判的으로 檢討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슈페터 體系上的 固有的「企業家活動」Eentreprenurship에 관한 誤解에서 비롯한 것이었음에 指摘하였다. 「企業家活動」에 관한 이와같은 誤解는 企業家活動의 「過程」내지 그 方法으로서의 中心概念인 「革新」Innovation에 관해서도 나타나 있다. 즉 Wallich는 自己主張의 要核部分에서 先進地域에서는 「發展의 推進力」이 自主的으로 機動되는데 反하여 後進地域에서는 그것이 「必要의 壓力」pressure of need과 「視界의 擴大」widening of horizon의 結合에 의하여 「誘發」된다고 주장한다. 그는 後者「視界의 擴大」를 녀시의 國際的 誘示效果와 一部는 植民地 支配의 終結에 關聯시켜 論하고 있는데 이를 차례로 考察해 보기로 하자. 우선 Wallich는 이렇게 論한다.

「『視界의 擴大』는 결국 『革新』을 模倣한다는데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 過程의 持續은 一旦 그것이 開始된 다음에는 事情이 달라진다. 우리는 좀처럼 低開發諸國에서 革新이 그 가장 特徵的인 모습을 지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 過程은 아마도 同化作用(assimilation)의 하나라고 記述하는 것이 한결 낯을 것이다. 물론 低開發國에서 新工業을 이룩하는 일이 企業家的 發起의 手腕이 된다는 事實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分明히 始原的인 original 革新過程과는 判異한 것이다.」(註32)

이 경우에서 問題는 「革新」概念을 어떻게 理解하고 있느냐가 要諦인데 이 引用文에서는 判別할 수 없겠으나 그가 後進國의 誘導된(外發的) 發展에 있어서는 「海外의 先例를 通하여 技術이 잘 알려져 있는가답에 革新이 必要하지 않다」(註33)고 論한 點으로 보아 그는 「革新」Innovation을 「技術」techniques과 同格으로 해석하고 있음이 分明하다. 이 解釋은 Singer가 슈페터理論에서는 經濟發展이 「新生産物의 製造」라든가 既存生産物에 대한 새로운 生産方法을 위해서 使用되는 新開拓 技術의 導入에 의하여 生産函數의 變化」를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反하여 低開發國에서는 經濟發展의 進行이 「新技術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當該 被開發國

家에 잘 알려져 있는 既存生産物의 生産에 既存 技術을 導入應用함으로써 이루어 진다」(註34)고 할때에 더욱 明確히 表現된다. 그리고 Bonné는 슈페터 模型에서는 「經濟過程이 主로 革新에 의해서 움직여 지지만」低開發諸國에서는 「機械化 生産이 內生的 革新에 依據하지 않고 移轉된 技術(transferred technology)에 依據하며」또 슈페터 模型에서는 「革新의 要素가 基本的인데 反하여 低開發國의 外發的 發展에 있어서는 新規 技術이 全然 必要치 않다」(註35)고 하여 Wallich와 同一한 見解를 피력한다. 이 밖에도 H.C Aubrey는 低開發國에 관하여 「企業家들은 工業 國家들로부터 既成의 技術을 導入해 오기때문에 始原的인 革新者가 아니다」(註36)라고 論하였다.

以上の 諸論旨에서 共通的인 要素로 抽出할수 있는 것은 勿論 「革新을 新技術과 同一視」하고 있는 點이며 다음에는 先進國에는 內生的 革新이 缺如되어 있는 가답에 슈페터의 革新論이 想定하는 意味의 經濟發展概念을 否認하려는 Bonné의 積極論과 低開發國에서의 革新을 肯定하되 그것이 「始原的」乃至 本來의 革新이 못되는 탓으로 低級의 發展밖에 가져오지 못한다는 Singer의 消極論을 가려볼 수가 있겠으나 이는 모두 革新概念의 誤解를 前提로 한데서 오는 當然한 歸結이므로 무엇보다도 이 點을 밝히는 角度에서 차례로 檢討하기로 한다.

元來 Bonné의 立場은 슈페터理論의 特히 發展概念의 基本構造가 資本主義經濟를 解明하는데 限界가 있다는 것을 論證하려던데서 出發하였으므로(註37) 지금 여기서 問題되는 革新缺如論이 事實은 그로부터 導出된 命題임을 認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그는 「他處로부터의 既成 및 利用中의 生産技術의 移轉은 當該經濟에 대하여 根本的 變動의 可能性을 供與하지 않는다」(註38)고 한다. 즉 Bonné에 의하면 既存技術의 導入은 設使 그것이 經濟的으로는 根本的인 變動에 까지

(註34) Singer, op. cit., pp.19~20

(註35) Bonné, op. cit., p. 249, p. 251

(註36) H. G. Aubrey, "Investment Decisions in Underdeveloped Countries," in *Capital Formation and Economic Growth*,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1955), p. 400

(註37) Bonné, op. cit., p. 250

(註38) Ibid., p. 251

(註32) Wallich, op. cit., p. 193

(註33) Ibid., p. 201

이르게 된다 하더라도 슈페터의 意味에서의 革新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해서 문제되는 生産技術의 技術上的 創新성이 슈페터의 意味에서의 革新의 基準은 아니다. 「革新이 科學的인 創新성을 지녔느냐 아니 지녔느냐는 全然 問題가 안된다」(註39)고 슈페터는 말한다. 왜냐하면 「革新」이란 經濟的 概念이므로 技術面에서가 아닌 經濟面에서, 다시 말하면 技術의 知識이나 經驗의 蓄積과의 關係에서가 아니라 經濟過程과의 關係에서 理解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 革新은 經濟적으로 새로운 것이지 技術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註40). 지금 눈을 돌려 科學技術의 世界와 經濟世界를 比較한다면 人類의 技術知識은 어떤 面에서는 世界的 規模의 人類共同財産이 된다고 볼수 있는데 比하여 經濟世界는 主로 政治的 領域을 中心으로 極端的인 利害關係의 對立·競爭·離合의인 運動을 그칠 줄 모르는 過程인 만큼 世界的으로 統一된 經濟世界가 形成될 수 없다. 그러니 經濟過程은 至極히 流動的인 技術在庫의 움직임(흐름이라고 하여야 좋을 것이지만)과는 別個의 無數한 存立이 可能하다고 보겠고 따라서 世界의 어느 一部에서 오래동안 周知되어온 既存의인 技術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地方에 가서 처음으로 使用될 때는 革新을 이룬다는 것은 두말 할 것도 없다.

비근한 例를 들어 어떤 後進國의 市場이 지금껏 輸入에 依存해 왔다고 할 경우 만일 이때 當該國內에 그 市場을 目標로 하는 産業이 건설된다면 이것이 바로 革新인 것이다. 이미 革新의 다섯가지 領域에 관한 슈페터의 指摘에서 明示되어 있드시 採擇되는 生産技術이 技術적으로 새 것이나 헌 것이냐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點은 叙上한 바와 같다. 이를 다른 例에서 보면 가령 革新活動과 餘他的 經濟活動과의 差異는 그것이 企業家的 活動과 常規的인 經營活動과의 差異로서 나타나는데 어떤 나라에 一定한 生産技術이 導入되었을 경우 그것이 革新을 이룬것은지의 與否는 그것이 企業家活動을 要求하는가 그렇지 않고 다만 日常的 經營管理만을 요구하는가,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을 開拓하여야 하는지 그렇

않으면 在來의 路線을 따라야 하는지의 與否로써 識別할 수 있다. 그러므로 低開發國에 導入되는 新産業들은 舉皆가 이와 같은 意味에서 企業家的 活動을 要求하는 事業이며 따라서 採擇되는 技術의 科學的 創新성의 有無를 莫論하고 革新으로 看做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低開發國에서는 「新技術」이 아닌 「既存技術」에 依存하기 때문에 그 革新이 弱少한 作用밖에 낳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新技術」自體가 이미 蓄積된 科學知識의 在庫로부터 誘導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무리 既存技術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環境에서는 그것이 多少라도 變更되지 않고는 使用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低開發國의 경우에 있어서는 外來技術의 導入過程이 大部分 그것이 活用될 自然 및 經濟, 社會, 文化的인 새로운 環境條件에 대하여 「既存」技術을 適應시키는 데는 長久하고 平易하지 않은 過程이 所要된다(註41). 新技術의 發生과 既存技術의 採擇과의 差異는 科學技術上으로 제아무리 重視된다 하더라도 經濟적으로 何等 意味가 없는 것이 아닐까? 前述한바도 있거니와 技術의 創意性有無를 가지고 低開發國에서의 革新可能 與否를 論하려는 立場은 革新을 經濟學적으로 理解하지 않고 技術學的으로 解釋하는 態度로서 슈페터의 企業家活動論을 歪曲시키고 있다.

以上 우리는 슈페터의 企業家活動을 核心으로 하는 發展(革新)理論이 低開發國의 經濟條件에 適用될 경우에 擡頭되는 문제點을 吟味한 結果 두가지 結論을 얻었다. 즉 첫째는 企業家活動의 擔當主體가 私企業人이나 政府냐의 差異는 그 自體 經濟적으로 何等的 意味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活動 動機의 心理的 側面에서도 本質的 差異가 없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슈페터의 革新의 技術的 創新성과의 同一視는 許容되지 않으므로 使用技術의 新舊에 대하여 經濟的인 意味를 賦與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企業家活動 또는 革新概念을 主軸으로 하는 슈페터 發展理論이 經濟를 內生的(여기서는 供給) 要因과 非連續的 發展이라는 두 角度에서 把握하려는 觀點

(註39) Business Cycles, I. p. 84

(註40) D. Rimmer, op. cit., p. 335

(註41) 이 點에 관해서는 E. Hagen의 所論 Higgins, op. cit. pp. 301~309에 興味있다.

에 대하여 녀시가提起하는「誇示效果」의 例들 들어, 後進國에서의 需要面을 통한 發展要因을 내세우는 한편 人口나 富의 增加等の 與件變動에 의한「단순한 成長」(註42)의 實證을 提示하여 外生的 發展要因을 高調함으로써 根本的인 批判이 加해지고 있으나 그렇다고해서 슈페터理論의 主軸인 經濟發展에 있어서의 企業家活動要因이 後進國의 경우에서 排除될만한 論據는 되지 못하므로 詳論을 避한다(註43). 더구나 그것은 앞서 論한 슈페터의 革新概念이나 企業家活動概念에 대한 誤解로부터 派生된 論據인 만큼 省略해서 무방하다고 본다.

생각컨대 슈페터模型이 低開發國에 適用될 때 提起되는 問題는 企業家活動概念 내지 革新概念의 本質의 內容의 側面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그 보다는 오히려 슈페터가 想定하고 있는 資本主義體制의 「社會的 與件」의 側面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슈페터는 歷史的 產物로서의 資本主義體制下의 經濟發展에 관한 模型提示를 意圖한 것이었고 따라서 그의 비존(vision)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社會가 企業家活動過程을 主軸으로 한 機構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低開發國의 경우에 對照시킬 수 있는 次元이란 革新的 活動의 社會的 條件 즉 企業家活動에 對한 社會心理의 내지 制度的 側面에 있다 할 것이다.

(2) Entrepreneurship 概念의 積極的 適用

前節의 論述은 슈페터의 企業家活動을 主軸으로 하는 革新理論이 低開發國의 經濟發展을 說明하는데 適用不可能하다는 論據를 批判的으로 檢討한 것이 있으나 이 節에서는 Entrepreneurship의 缺如가 오히려 低開發國의 經濟成長에 主된 隘路가 되어있다고 主張하는 이른바 適用可能論을 吟味・檢討하기로 한다.

低開發經濟에 관한 傳統的 模型에 의하면 後進國의 資本形成과 그를 통한 經濟發展이 阻害되는 根本原因이 總產出高 내지는 總供給의 不足에 있다는데서 出發하여 每人當 實質所得이 低位이고 그 때문에 平均 및 限界消費性向이 높아지며

따라서 貯蓄이 낮아지니 다시금 生産的 資本形成이 制約을 받아 要循環을 거듭하는 靜態的 均衡이 持續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하여 이 模型은 거의 自明한 原理인 것 같이 行勢하고 있는 터이다.

그러나 이러한 總「供給」내지 資本의 絕對的 不足論에 대하여 오히려 資本의 「需要」不足을 低開發經濟의 資本形成을 阻害하는 主要因으로 보려는 立場이 있다. 그리하여 이 資本需要의 不足은 核心的이고 戰略的인 資源인 「企業家活動」 Entrepreneurship의 缺如에서 찾아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主張을 내세우는 代表的인 論者는 C. Wolf(註1)이며 그는 이 命題를 立證하기 위하여 低開發國에서의 現行的 및 潛在的인 資本(貯蓄)供給源을 索出하고 그것이 利用되지 않고 있는 原因을 需要不足에 歸着시킨다.

즉 그에 의하면 一部 低開發國에는 政府의 財政의 去來에서 發生한 現金殘高, 輸入의 過度統制에서 發生하는 國際收支剩餘, 富裕層의 先進諸國에의 資本逃避等を 爲始하여 外國援助資金, 民間外資等 潛在的 投資可能資源이 不少함에도 不拘하고 그것들이 生産的, 能動的 資本(active capital)으로 보다 住宅, 貴金屬등의 受動的 資本(passive capital)으로 流出되고 있다(註2). 그뿐 아니라 主로 低開發國의 農村地域에서 볼 수 있는 現象이지만 消費支出의 相當比率이 儀禮的인 行使에 使用되고 또 都市에서의 遊興目的을 위한 支出의 過度現象은 이 地域에 適切한 資本需要만 있다면 轉用可能한 資本量의 存在를 暗示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註3). 이 밖에도 農村에 潛在하는 過剩勞動이 資本創出의 事業에 轉用할 수 있는 資本源泉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녀시教授가 指摘한 바이다. 勿論 여기에는 「生存基本」의 動員과 勞動力의 再配置에 수반되는 附加的 資本이 所要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Wolf는 이 문제도 新規雇傭者들의 消費水準을 現在의 수준에서 抑制하고 또 新規事業自體가 勞動者들의 居住地가 가까워서 일어난다면 最少限으로 멈출 수 있으므로 問題는 그러한 事業의 誘因 즉 資

(註42)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op. cit., S. 96

(註43) 이에 관한 詳論은 D. Rimmer, op. cit., pp. 440~447.

(註1) Wolf and Sufrin, op. cit. pp. 11~52

(註2) Ibid., p. 12

(註3) Ibid., p. 13

本需要가 더 緊要하게 된다(註4).

그리고 또하나의 資本源泉은 이미 蓄積이 이루어진 受動的 資本을 負의 投資化(disinvestment)시킴으로써 얻어진다(註5). 즉 低開發國에 盛行되고 있는 金銀寶石 같은 非生產的 資產의 賣去處分을 통한 方法과 非生產的인 固定資本에 대한 減價銷却의 故意的 迴避方法과의 두가지 길이 可能하다고 한다. 이렇게 보아오면 低開發國에서 生產的 資本의 量을 증가시키는 문제는 어느정도까지는 現在 및 以前에 이루어진 投資의 構造와 類型을 變化시키는 문제가 된다.

그런데 만일 以上과 같이 資本形成을 증가시킬 수 있는 資源이 存在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使用할 수 있는 市場이 充分히 存在하느냐의 문제가 일어난다. 여기서 市場規模의 狹小論이 擡頭되고 그것은 바로 生產力의 低位를 反映하는 同時에 投資誘因에 대한 阻止效果를 가짐으로써 亦是 惡循環을 持續시키는 隘路가 된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障壁을 打破하는 通常의 方案은 社會的 間接投資를 통한 外部經濟의 造成과 多角的·同時的 投資擴大에 의한 均衡成長方式에 呼訴하여 왔다(註6).

이에 대하여 Wolf는 理論的 및 經驗的인 兩面에서 市場狹小論에 疑問을 提起한다. 즉 첫째는 한 나라의 輸入品目 自體는 이미 自國內에 確立되어 있는 市場의 넓이를 提示한다고 한다(註7). 그리하여 國際貿易面에서 볼때 既存의 國內外市場은 輸出產業과 輸入代替產業을 위하여 넓게 開放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Wolf는 低開發國에는 比較的 小規模資本을 가지고도 即刻的인 市場販路와 競爭國에 대한 越等한 比較優位를 享有할 수 있는 投資機會를 갖었음에도 不拘하고 投資나 產出高增加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面을 實例로써 指摘하고 있다(註8).

그뿐 아니라 歷史的 經驗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반드시 市場의 制限이 投資活動에 대한 強力한 障壁가 되었느냐 하는 點에서 多少 疑問이 있는 것이다. 가령 소聯이나 日本같은 경우는 처

음부터 政策的으로 市場문제가 多角的 投資라는 發展政策속에서 이미 짜여져 있던 경우이지만 西歐의 發展過程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連鎖的으로 일어난 技術革新에 의해서 刺戟된 投資波動이 「創造的 破壞過程」을 展開시킴으로써 制限된 市場規模에 의한 表面的 障壁를 克服해왔다고 볼 수 있다. 要컨데 低開發國에는 國內市場이 制限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開拓되지 않고 있는 高度로 魅力的인 投資機會가 許多하다고 Wolf는 主張한다.

그렇다면 만일 叙上한 바와 같이 資本形成을 증대시킬 수 있는 資源이 舉皆의 低開發國 테두리 안에 存在해 있고 또 이들 資本을 有利하게 生產的으로 利用할 수 있는 未利用狀態의 投資機會도 存在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資本形成의 문제에서 解答되어야 할 基本的 疑問은 어째서 生產的 投資가 自動的으로 일어나지 않느냐하는 것이다(註9). 여기에 대한 通常的인 對答에는 要素非可動性을 설명해 주는 「市場의 不完全性」이란 術語가 使用되고 있으나 Wolf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低開發經濟에서 生產的 資本形成의 率이 흔히 阻害되고 있는 것은 總體的인 資本의 不足이나 資本使用을 위한 有利한 機會의 缺如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한가지 核心的 내지 戰略的인 特殊資源인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의 不足때문이다. 이는 現存하는 또는 豫想되는 市場條件을 利用하기 위하여 生產諸要素의 새로운 結合方法을 着想하고 實現시키는 機能을 말한다. 슈페터의 定義에 따르면 企業家란 信用과 技術의 도움을 얻어 未使用 내지 新規의 技術과 아이디어를 革新하고 또 그것을 經濟過程에 獨創的으로 應用하는 創造的 事業指導者라고 볼 수 있다. ……企業家は 資本을 供給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의 主된 機能은 新機軸——즉 그 自身の 獨創的인 아이디어건 남에게서 借用한 아이디어건——을 供給하는데 있다. 要는 그가 一般的으로 行해지지 않는 方法으로 어떤 일을 取行한다는데 있는 것이다.」(註10)

결국 그는 企業家的 機能이야 말로 可用資源과 現存하는 投資機會와를 結合하는 要因이며 이 要因의 缺如가 許多한 低開發經濟에 있어서 生產的 資本에 대한 潛在的 需要를 阻害하며 따라서 經濟發展을 遲延시킨다고 結論하고 있다.

그런데 企業家活動이야 말로 核心的 資源이며

(註4) Ibid., pp.14~15

(註5) Ibid., p.16

(註6) Ibid., p.18

(註7) Ibid.

(註8) Ibid., p.19

(註9) Ibid., pp.20~21

(註10) Ibid., p.21

그의 缺如가 많은 低開發國에 있어서 資本形成을 妨害하고 있다는 示唆는 企業家活動에 대한 障礙에 關하여 一連의 문제를 提起한다. 그리하여 그것은 企業家活動을 阻害 또는 促進하는 要因의 分析을 要求하며 이는 또 企業家活動의 起源을 비롯하여 그 出現率이 時期와 場所에 따라 다르게 되는 理由, 그리고 企業家活動의 擔當主體가 商人層으로부터 生産者層으로 轉換되는 過程 및 條件등에 關한 研究—換言하면 企業家活動 自體의 主體的 條件뿐만 아니라 그 企業家活動을 制約하고 있는 社會的 諸條件에 關한 研究를 要請하는 것이다. 이는 經濟發展 문제를 理解하는데 있어 必要不可缺한 項目의 하나가 아닐 수 없다.

第三章 企業家活動의 社會的 條件

(1) 企業家史研究의 始發點

슈페터의 Entrepreneurship 개념을 繼承·發展 시킴으로써 今日의 企業家史學의 確立者가 된 하바드大學의 A. H. Cole 教授는 1946年 美國經濟史學會의 會長就任講演에서 「요컨대 企業家活動이야말로 自由經濟 내지 相對的 自由經濟에 있어서 다름아닌 強力한 變化生産力(change-producing force)이라고 認定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企業家』를 研究한다는 것은 곧 近代經濟史의 中心像을 研究하는 것이며 또한 내 생각으로 한다면 經濟學의 中心像을 研究하는 일이 된다」(註1)고 하였다. 勿論 이처럼 大膽한 發言 속에는 批判 檢討되어야 할 餘地가 없지 않다고 하겠으나 이는 앞서도 論及한바와 같이 經濟學의 關心이 靜態論에서 動學으로 移動되고 成長 乃至 發展問題를 長期的 角度에서 取扱하게 됨에 따라 既往의 諸「與件」이 內生化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事物의 經濟的 側面이라고 하는 것은 基本的으로 餘地의 모든 事情에 依存하기 때문에 經濟的 變動은 先行하는 經濟諸條件만으로

는 說明할 수 없다」(註2)고 하는 認識이 再評價되는 趨勢下에서 經濟史家가 經濟發展을 透視하는 하나의 方法을 模索하려한 것이라 하겠다. 특히 從來의 經濟學이 「人間的」 「主體的」 要因을 利潤極大化라는 動機에 의하여 機械的으로 움직이는 超歷史的 存在(economic man)로 處理해 오던 것은 일찍부터 經濟的 要因과 非經濟的 要因間의 相互關係의 作用을 史實에 의해서 다루어야 했던 經濟史家에 있어서는 견디기 어려운 假定이었다(註3).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 從來의 經濟史家들의 支配的인 研究對象은 長久한 人類經濟史에서 資本主義體制의 成立期에 이르기까지 고작이고 産業革命以後 今日에 이르기까지 一世期餘의 期間에 대해서는 그것을 經濟理論家의 領域인 것처럼 經濟史學에 있어서 忘却된 地帶였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생각컨대 이것은 歷史를 바라보는 視角의 再檢討를 要求하는 段階가 到來한 것을 意味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經濟史는 經濟理論의 進展과 더불어 고쳐쓰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註4)」 1953년에 發刊된 美國經濟學會 및 經濟史學會 共編의 Readings in Economic History의 表題가 『企業과 長期的 變動』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로 되어있는 點이라든가 하바드大學 企業家史研究所 發刊의 『變動과 企業家』 Change and Entrepreneur라는 表題等屬에는 이미 經濟史家들의 上記와 같은 問題意識이 內包되었던 것이며 企業單位 또는 企業活動에 關한 研究의 理論的 成果를 攝取하고 歷史解釋의 空間을 메꾸려는 機運의 하나라 할 것이다.

A. H. Cole은(註5) 「지금까지 經濟史家들은 數世紀前의 英美를 包含하는 低開發國의 成長을 中心으로 經濟成長을 研究해 왔으나 그 成果는 經濟理論家들을 魅惑할만한 形態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理論家는 歷史를 보다 많이 읽고 自說의 一般化를 피하여야 했음에도 不拘하고 그들이 歷史的 資料를 廣範히 읽는 일은 決코 없

(註1) A. H. Cole, "An Approach to the Study of Entrepreneurship," in *Enterprise and Secular Change* (ed. by Lane and Riemersma, 1953), p. 187.
A. H. Cole,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1959), p. 28

(註2) Schumpeter, *Theori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op. cit., S. 90

(註3) W. W. Rostow, op. cit., p. 2.

(註4) B. Higgins, op. cit., p. 238n.

(註5) *Business Enterprise in its Social Setting*, op. cit., Preface, xi

었다.……그 결과 理論的 假說이……歷史的 成果보다 知的으로 優越하다고 하는 생각이 오래 동안 學界를 支配해온」風潮에 대해서와 또 한편 으로는 經濟理論에 관한 書籍들이「企業家に 관해서는 거의 論及하는바 없이 기껏해야 勞動이라든가 經營이라든가 하는 莫然한 概念속에 人間이 埋沒되어 있는」데 대해서 不滿을 가지고 「經濟學을 社會科學의 中心科目으로 回復하고… …成長뿐만 아니라 停滯나 衰退까지 포함하는 經濟變動을 科學的으로 處理하는데는 社會 文化的인 테두리 안에서 長期에 걸쳐 經濟的 諸勢力과 關聯을 갖는 企業家史만큼 適切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지금, 슈페터體系에서 보아온 바와같이 企業家活動이 經濟發展의 決定因이라고 한다면 이 企業家活動을 規定(促進 또는 制約)하는 條件이 무엇이나 하는데 問題의 出發點이 있다. 슈페터는 이것을 社會的 風土(Social Climate)의 側面에서 解明하여야 할 것으로 認識하였으나 「經濟過程은 經濟要因으로 說明되는데까지가 經濟理論의 領域(註6)」이라고 하는 嚴格한 限界 때문에 文字 그대로 그는 示唆에 그쳤던 것이다. 이처럼 示唆에 그쳤던 側面이 經濟發展을 넓은 視野에서 展望하고 成長理論을 擴充하여야 할 段階에 이르러 本格的인 研究對象으로 登場한 것은 어디까지나 歷史的 關心을 가진 經濟史家들의 努力의 成果이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企業家活動을 規定하는 歷史社會的 條件이 무엇이나 하는데 焦點이 놓여진다. 왜냐하면 從來 經濟理論에서 지극히 抽象的으로 取扱되던 「經濟人」이 여기서는 直接 經濟活動을 擔當하는 具體的인 人間으로 다루어지고 더구나 그것이 現實의 歷史社會的 環境에서 超然하고 固定不變한 存在가 아니라 經濟, 產業 構造나 企業組織 같은 客觀的·制度的인 影響은 말할 것도 없고 이같은 面을 前提로 하면서도 가지가지 意思決定의 自由를 가진 經營主體가 現實의 歷史社會的 環境下에서 存立하는 諸條件을 究明하여야 하는 까닭이다. A. H. Cole의 말을 빌리면 經濟學이나 經營學에서는 「business man 이라는 것이 어떠한 文化, 어떠한 나라에 있어서든 그리고 또 現在나 過去를 莫論하고 恒常 同

一하다고 하는 暗示를 內包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企業家活動(Entrepreneurship)의 研究者들은 1959年의 美國의 businessman은 어찌서 그가 現在 가진 것과 같은 性格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어찌서 現在 行動하는것 같은 行動을 하게 되는가를 解明하려는데 關心이 있는 것이다. (註7)」

以上の 叙述에서 推論할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있어 當面課題는 企業家活動에 있어서의 人間的·主體的인 要因과 社會的·構造的인 要因의 關聯場所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경우 社會的·構造的인 側面이란 반드시 生産關係라든가 市場構造라든가의 經濟構造나 所有關係 또는 階級關係等屬의 社會構造만을 指稱하는 것은 아니다. 그와같은 側面에 관하여서는 이미 우리가 經濟學이나 經濟史學의 立場에서 오랫동안 追求해온 터이며 그리함에도 不拘하고 그러한 經濟構造的인 面으로 說明할 수 없는 人間的·主體的인 要因이 殘存하는 場所에 우리의 問題의 出發點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都大體 經濟構造도 社會構造도 아니면 人間的 主體的인데 影響을 미치는 構造란 무엇인가? 이 점을 생각하는데는 近年의 經濟世界의 經驗이 하나의 示唆을 던져 주고 있다. 즉 二次大戰後 美國이 主宰한 各種의 對外援助를 通하여 美國의 產業體制가 얼마나 獨自的인 것인가에 관한 認識이 높아져 간데서 비롯한다. 즉 一連의 援助프랜에 依據하여 수많은 美國의 技術者, 實業家, 學者들이 유럽 및 餘他의 後進諸國에 派遣되고 또 反對로 이들 나라의 技術者, 實業家들이 美國을 訪問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異口同聲으로 到達한 結論의 하나는 從來의 經濟學에서는 거의 論外의 것으로 取扱해 오던 社會的·文化的인 要因이 各國의 企業家活動에 따라서 經濟發展 그 自體에 커다란 影響을 미치고 있다는 事實, 바꾸어 말하면 나라가 다른데 따라서 그나라의 支配的인 社會 文化的인 要因이 다르고 또 이에 따라 各國의 企業家들은 各己 相異한 行動樣式을 나타내어 그것이 經濟發展의 相異한 類型을 가져온다는 것이었다(註8)

(註7) A. H. Cole, pp. cit., p. 13

(註8) Hoselitz (ed), The Progress of Underdeveloped Areas(1952), Preface and Part II—The Cultur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즉 美國의 對外援助 政策立案者들이나 當務者들은 大部分 當初에 「달라와 道具」 즉 貨幣資本과 技術만 供給하면 그들 나라의 經濟發展은 自動的으로 實現되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나 實際에 있어서는 一定한 資金과 設備과 技術的 援助를 贈與하더라도 豫期하던 成果가 나타나지 않는경우가 許多했던 것이다(註9). 그리하여 이와같은 問題에 대하여 더한층 考察해 본 결과는 必然的으로 信用·市場·企業組織같은 制度的인 배두리 뿐만이 아니라 그 背後에 숨겨져 있는 社會的·文化的인 要因의 問題까지 캐내고 그들 各社會에 支配的인 思考·行動樣式을 밝히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註10). 人間的 主體的인 것에 관한 再評價는 이와같은 問題들의 捕捉을 위한 것이었지만 우리는 이 問題를 다음과 같이도 表現할 수 있다고 본다. 즉 企業經營에 있어서 意思決定이 이루어질때 市況이라든가 利用可能한 技術이나 資金事情따위의 經濟學的 判斷이 企業의 意思決定의 範圍를 몇개의 選擇可能한 經營政策에 까지 限定하는 일은 있다해도 窮極的으로 唯一한 意思決定에 까지 誘導하는 것은 事實上 至極히 稀貴한 일이며 따라서 殘餘의 몇가지 代替可能性 중에서 어느것을 選擇하느냐 하는것은 오히려 當該 企業가가 가진 主體的 人間的인 因子에 의해서 決定된다고 보아야 할것이다(註11). 그뿐만 아니라 意思決定의 素材로서의 經濟的 諸條件 그 自體도 企業主體에 의한 評價와 判斷을 통해서 비로소 意思決定의 內容에 作用한다고 본다. 따라서 Cole教授의 말을 빌리면 經濟的 諸條件은 意思的인 人間主體를 통하여 「作用되는」 made to behave 것이지 스스로 意思決定에 直接 「作用하는」 behave 것은 아니기 때문에(註12) 거기에는 自然히 가지가지의 主觀的 要因이 企業意思決定을 左右할 可能性이 存在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처럼 人間的·主觀的인 要

(註9) Frankel, *The Economic Impact on Under Developed Societies*(1953), p. 23, 145, Chapt. V.

(註10) R. Linton, "Cultural and Personality Factors Affecting Economic Growth," in *The Progress of Underdeveloped Areas*, op. cit., pp. 73~88.

(註11) *Change and the Entrepreneur*, op. cit., pp. 19~20

(註12) A. H. Cole, op. cit., p. 34, 39.

因을 통해서 作用하는 主觀的 意思決定같은 것을 都大體 어떻게 科學的 研究的 對象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인가? 즉 이같은 主觀的 價值判斷에 의한 最終意思決定이 經濟的인 合理性에 의해서는 說明할수 없다는 것이 明白할진데 經濟學이나 經營學의 立場에서는 이처럼 「非合理的인」人間活動은 벌써 科學的 研究的 對象으로 삼을수 없다고 하는 見解가 成立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경우 우리는 다시한번 다음과 같은 點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즉 都大體 過去에 있어서의 現實的인 經濟發展은 어느만큼이나 經濟學이나 經營學의 立場에서 보아 合理的이라고 할수 있는 意思決定에 의해서 齊來되었던가? 換言하면 經濟學의 立場에서 본다면 오히려 非合理的인 意思決定이 結局에는 企業의 繁榮을 가져오고 그나라의 經濟發展을 支持해온 事例는 經濟史上 稀貴한 일이었던가?(註13) 現實의 歷史는 決코 그렇지 않았으며 具體的인 經營意思決定의 許多한 例가 經濟學의 理論으로는 說明할수 없다는 意味에서 오히려 「非合理的인」 것이었으니 萬一 그렇다고 한다면 이와같은 企業家들의 經營意思決定이 經濟發展을 促進하든 制約하든 우리는 이것을 어떤 方法으로든지 科學的으로 說明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勿論 이같은 人間的·主體的인 것이 恒常 必然性이 없는 單純한 偶發的 現象으로 밖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을 科學的 研究的 對象으로 삼을수 없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特定한 社會에 一定한 傾向을 가지고 나타난다면 여기에 어떠한 科學的 說明을 加할수 있지 않겠는가? 바로 이와같은 點에 着目한 企業家史의 研究者들은 企業家活動에 影響을 미치는 社會經濟的인 要因以外에 文化的 諸要因(cultural factors)의 導入을 위하여 經濟學이나 經營學以外的 諸他社會科學, 그중에서도 특히 社會學으로 부터 莫大한 學問的 借入을 하고 있는 터이다(註14). 아직 이 方面의

(註13) Buchanan and Ellis는 이 點에 관하여 「經濟成長의 事實上的 根本問題는 非經濟的인」이라고 表現하고 있다. Op. cit., p. 405

(註14) 좁은 意味의 企業家史研究뿐만 아니라 廣範한 分野에 걸쳐 社會學의 成果를 導入하고 있는 것으로는 Hoselitz, *Sociological Aspects of Economic Growth* (1960)가 있고 Chicago大學의 定期刊行誌로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가 있다.

研究는 探求의 段階에 있으므로 體系的인 理論 展開가 어려운 形便이나 各社會의 特有的 思考・ 行動樣式을 規定하는 文化構造에 關하여 그 分析 基準으로서 一般的으로 論해지고 있는 카테고 리를 추려보면 價値體系 (value system), 目的 또는 目標體系(objective or goal system), 社會 的地位評價 (social ranking) 또는 社會的 承認 (social sanction) 등이 있으며 이같은 領域의 類

型的 差異에 따라 各社會에서의 企業家活動 내 지 그 意思決定에 促進的 또는 沮止的인 影響을 미치고 이것이 곧 그 社會의 經濟發展에 差異를 發生시킨다는 것이다. 이제 이와같은 基底的인 諸勢力(文化的 構造)이 經濟史上 어떠한 手續을 거쳐서 經濟發展에 影響을 미치는가를 企業家活動의 諸要件을 中心으로 하여 實證的으로 研究 하는 것이 다음 段階의 課業이라 하겠다 (未完).

(筆者 서울大學校 商科大學 專任講師)